전남 영양실조 4년새 2.5배 늘었다

2017년 407명→지난해 1165명 진료…코로나에 전국 1만명 넘어
민주당 김원이 의원,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해결할 복지 확립해야"

코로나 19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영양실조로 의료기관을 찾은 국민이 전남지역민을 비롯해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단절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소외계층의 생계가 위협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 국회의원이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국민은 총 1만1115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이후 매년 5000~6000명대를 기록하다가 1만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8년 5426명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사람 대다수는 60대 이상 노인층으로 전체의 62.4%(6940명)을 차지했다. 80세 이상이 23.6%(2622명), 70대 23.1%(2573명), 60대 15.7%(1745명) 순이다.

적지 않은 수의 청년과 아동·청소년도 지난해 영양실조로 병원을 찾았다. 20~30대 청년층은 전체의 12.1%(1350명), 10대 이하 아동·청소년은 5.2%(578명)을 차지하는 등 영양실조는 전연령대에서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의 경우, 영양실조로 진료받은 사람이 지난 2017년 407명에서 2021년 1165명으로 2.5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영양실조가 급증한 원인에 대해, 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늘어난데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올 4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되기 전까지 노인복지시설 등이 폐쇄되고, 초등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다. 이에 따라 무료급식소와 푸드뱅크,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취약계층의 영양상태가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취약계층의 열악한 현실은 영양실조로 진료를 받은 사람 중 의료급여 환자의 비중을 보면 잘 드러난다. 의료급여 환자는 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으로 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국가가 부담한다.

지난해 영양실조 진료인원 1만1115명 중 의료급여 환자는 총 1837명으로, 전체의 16.5% 비중이다.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총 151만6525명(21년 12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 수준이다. 즉, 일반 국민에 비해 저소득층의 영양실조가 훨씬 심각한 셈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민간 무료급식소와 복지관 등이 최근 운영을 재개하고 있지만, 물가급등으로 재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이 힘들다는 점이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은 아직도 진행중이고 경제위기까지 겹쳐 빈곤층에게 더 가혹한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을 해결할 보다 세밀한 복지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시 동구 무등산 규봉암이 가을빛으로 물든 나무숲. 〈광주일보 자료사진〉

전남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신안 유치 온힘

전국 최대 면적·최초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 당위성 알리며 캠페인

전남도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의 신안 유치 지지서명 캠페인에 나섰다.

전남도는 캠페인을 통해 갯벌 유산 전국 최대 면적, 최초·최대 해양보호구역 지정, 정부계획 기여도 및 지역민의 갯벌 보전 의지 등의 논리로 신안 유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지지서명은 '온라인(모바일) 전라남도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기원 웹사이트(www.한국의갯벌.com)'에서 누구나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지 선정 계획'을 발표, 평가기준과 일정, 공모절차 등을 공개했다. 공모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공모 기준은 지자체의 토지 무상임대, 부지면적 1만㎡ 이상, 광역자치단체별 1개 시·군 신청 등이다. 사업비는 국비 320억원으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갯벌의 90.4%를 차지하고 있는데다, 유산 등재까지 주도적이고 핵심적 역할을 한 것을 강조하며 보전본부 입지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보전본부의 역할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갯벌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전관리에 있으므로 갯벌 최대 보유지역이자 3개 시·도의 갯벌 연속유산 통합관리의 최적지인 신안에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남은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최대 면적을 보유하고 있고, 2001년 12월 무안이 최초 습지보호구역 지정을 받았고, 습지보호구역이 1206.22㎢로 전국의 84%를 차지하는 등 보유 및 지역민의 갯벌 보전 의지가 전국 으뜸이다. 특히 1992년 영산강 4단계 사업으로 갯벌 3만3560ha를 매립해 간척지와 담수호를 조성하겠다는 정부의 대단위 간척사업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당초 신안과 함께 순천도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으나 전남도가 조율해 신안이 응모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전남은 세계자연유산의 90% 이상과 전국 갯벌의 42%를 가지고 있어 보전본부 건립의 최적지"라며 "신안에 유치해 지속가능한 보전과 현명한 이용으로 미래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도전

유네스코 평가위원, 19~22일 현장 심사…내년 4월 최종 결정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은 "19일부터 22일까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을 위한 현장심사를 광주·담양·화순 일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인증 현장심사에는 유네스코가 선정한 지질공원 전문가인 베트남의 쩐떤빤(Tran Tan Van)과 이란의 키미야 사닷 아자예비(Kimiya Sadat AJAYEBI)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들 위원은 광주·담양·화순에 머물며 무등산권역의 지질명소와 역사문화명소, 지역주민 협력사업 추진현황 등을 살펴본다.

현장심사는 19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개최하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20일에는 무등산 주상절리대·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설부지·지오빌리지 청풍마을 등을, 21일에는 고인돌 유적지와 서유리 공룡화석지보호각 등 화순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마지막 날에는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담양습지 등 담양권역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현장심사 위원과 4개 지자체 관계자가 모여 현장심사 과정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지난 4년간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관리 상황을 최종 심사한다.

현장심사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평가 지침에 따라 지질교육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현황, 지역 주민과의 협력사업, 지질명소 보존 노력, 지질공원 관리구조 등을 확인하고 평가한다.

광주시와 전남도, 담양군, 화순군은 19일 환영 리셉션에서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성화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개 지자체간 강한 협력의지와 안정적 지질공원 관리구조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공동협력 협의회를 구성하고,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의 지위 유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국내에서 제주, 청송에 이어 세 번째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첫 재인증에 도전한다.

지난해 1월 광주·전남·담양·화순 4개 지자체는 인증 이후 4년간의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운영에 대한 경과보고서, 자체평가서, 증빙자료 등을 유네스코에 제출한 상태다. 이후에도 유네스코 권고사항의 이행과 지질공원 홍보 및 활성화, 국제교류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광주시 등 4개 지자체 관계자들은 최근 태국 사툰 세계지질공원에서 열린 제7차 아시아·태평양 지질공원 총회에도 참석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현장평가자로 선정된 두 위원을 사전면담하고,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홍보부스를 운영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 활동에 나서고 있다.

현장심사가 완료되면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2월까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이사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 개최되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재인증 여부가 최종 발표된다. 심의결과 평가점수가 일정 기준 이상(그린카드)을 받아야만 세계지질공원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다.

송용수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구축 노력 등 내실화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을 이끌어온 만큼 재인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현장심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코로나 신규 확진 감소세…정부, 일상대응 전환 방안 논의

광주와 전남 지역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000명대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광주 1108명, 전남 1079명 등 2187명이다. 사망자는 광주 2명, 전남 2명이다. 위중증 환자는 광주 9명, 전남 20명이다.

광주·전남 하루 확진자 수는 이달 들어 5000명대를 오르내렸으나, 추석 연휴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8000여명이 감소한 3만명대로 나타났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3만4764명 늘어 누적 2439만4466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확진자 규모는 전날 4만3457명보다 8693명이난 감소한 수치다.

1주 전 11일(2만8200명)보다는 6564명이 많긴 하지만, 당시 추석 당일(10일) 진단 검사 건수가 감소했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어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2주일 전인 지난 4일(7만 2122명)과 비교하면 3만 7358명이나 줄어 절반 이하 수준이 됐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비상대응에서 일상대응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경기,수도권 10억 이상 투자
(주)오천. 010-3605-5000

지분 임야,대지 삽니다
맹지사절. 010-6837-4700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 산 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합 계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타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용암전기(이하 "갑"이라 함)와 엠지이엔씨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서기 2022년 09월 18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와 이에 공고함

2022년 9월 19일

"갑" 주식회사 용암전기
(법인등록번호 : 200111-029021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170번길 58 (쌍암동)
대표이사 정 명 란

"을" 엠지이엔씨 주식회사
(법인등록번호 :201211-0008723)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60
대표이사 김 민 욱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년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금의 액 금1,366,000,000원 중 금54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의 액을 금826,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총수에 대하여 감자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 회사의 구 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9일

주식회사 탑선태양광2호
전라남도 장성군 동화면 남평리 1060-6
대표이사 박 광 수

자본감소 및 주권제출공고

본 회사는 2022년 9월 16일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본금의 액 금861,000,000원 중 금300,000,000원을 감소하여 자본금의 액을 금561,000,000원으로 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 각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총수에 대하여 감자하는 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본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 회사의 구 주권을 소지하신 분은 위 기간 내에 본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9월 19일

주식회사 그린영암에너지
광주광역시 북구 서하로94번길 60, 101동 2001호 (용봉동, 용봉엘리체)
사내이사 김 남 길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박태규(531227-XXXXXXX)
- 최후주소 : 순천시 중앙초등길 132, 5동 1203호 (풍덕동, 한신아파트)
- 등록기준지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주산길 28의 3

피상속인 망 박태규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느단415호로 신청하여 2022년 9월 8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9월 19일

- 상속인 : 박종란(870128-XXXXXXX) 순천시 해룡면 연향로 166, 205동 1403호 (대광로제비앙-센트럴)
- 신고기간 : 2022. 9. 19. ~ 2022. 11. 2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박종란의 주소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 망 김상훈(700123-XXXXXXX)
- 최후주소 : 목포시 교육로 91, 606호 (상동, 21세기하이트오피스텔)

피상속인 망 김상훈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22느단313호로 신청하여 2022년 9월 13일 심판 인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내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위 기간이 지나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9월 19일

- 상속인 : 김지민(020228-XXXXXXX) 광주 북구 양일로305번길 11, 104동 1710호 (일곡동, 일곡대림아파트)
- 신고기간 : 2022. 9. 19. ~ 2022. 11. 29.
- 채권신고처 : 상속인 김지민의 주소

공장 임대
해초(다시마, 미역, 건어물) 및 냉면, 수제비, 국수 제조 사업하실 분 환영합니다.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농공단지 내
면 적 : 공장 150평, 냉동창고 200평 (급냉동, 냉장 3칸 높이 9m), 지게차 2대 (전동식)
시 설 : 최신기계설비완비, 공장 즉시 가동 영업 가능
금 액 : 보증금 및 임대료 상호협의
주인직 ☎010-2390-5343, 010-9300-5072

정 정 공 고

본지 2022년09월07일자 게재된 (주)중부전기와 (주)평호전력의 분할합병 및 주권제출공고 중, 하단의 "을"(주)평호전력의 주소"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710번길 16, 203호(동천동)"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용로 70, 102호(다가동, 유림회관)"으로 정정공고함.

산행안내

9월24일(토)

▲광주호산회 9월24일(토) 〈울산 대왕암 둘레길〉 오전 06시 풍암동 롯데마트 7주차장출발 06시 30분롯데백화점 06시45분 예술회관후문 ※다음카페 광주호산회 ☎ 010 4621 2166, 010 6702 9796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

70년을 밝혀온 호남언론의 상징 -
지역과 함께, 독자와 함께
"100년 신문"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光州日報

•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산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3-6836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충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3-6836 • 백 운 651-1833 • 봉 선 673-6836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2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암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운 남 952-1687 • 월 곡 959-1920 • 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70년
光州日報 ·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